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고(故) 정재경 장로 어제 교회장으로 장례식 치루



정재경 장로 장례식이 토요일 어제 춘천 경춘 공원 묘원에서 교회장으로 진행되었다.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역자와 당회

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故) 정재경 장로와 남은 유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했다.

이번주 목요일 새벽에 소천한 정재경 장로 시신은 목요일 아침에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옮겨져 빈소가 마련되었고, 금요일 오전 11시에 입관예배가 드려졌으며, 토요일 어제 오전 8시에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예배를 드린후 장지인 춘천으로 출발했다. 정재경 장로는 1942년에 출생하여 1980년에 소망교회에서 부활주일날 수세하고 1992년에 주님의교회 장로로 장립되어 소천되기까지 주님의교회 시무장로로 시무하며 교회를 섬겨왔다.

정재경장로는 간암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 사이에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지난 목요일(24일) 새벽 6시 4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정원 권사와 지인, 선인, 혜인, 영인 4명의 딸이 있다.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애도를 표한다.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을 꿈꾸는 전도부흥회 3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3일간 저녁집회로 열려



봄이 시작되는 3월,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를 교회의 여러 가지 비전중 하나로 삼고 있는 우리교회는 그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춘계 전도부흥회를 준비했다. 오는 3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3일간 저녁집회로 열린다. 강사는 현재 시카고 안디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채수권 목사가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된다. 채목사는 윌로우크릭 아시아지역 책임자로서, 다년간 윌로우크릭협회 스태프로 섬기면서, 생활전도세미나 강사로 사역해 왔다. 채목사는 생활전도 즉,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은사와 개성에 맞는 전도방법을 찾아 자신이 속해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해 줄 예정이다. 이번 전도부흥회

를 통해 전도에 대해서 어렵게만 느꼈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도를 해야만 하는 목적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영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구원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 불타는 구령(救靈)의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이 부흥회를 통해 특별히 올 봄에 새롭게 시작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4부 전도예배에도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은혜로운 집회를 위한 뜨거운 중보기도를 부탁드린다.

전도 부흥회와 함께 영적 봄날을 경험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춘계 전도부흥회가 3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3일간 저녁집회로만 열린다. 이번 전도부흥회 강사로 오게되는 채수권 목사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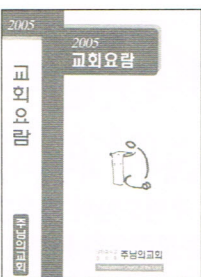
채목사는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에서 학부를 마치고,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부목사와 Willow Creek Association 국제 사역부 아시아 대표를 거쳐 현재 시카고 안디옥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가족은 아내와 슬하에 딸(14살) 한 명을 두고 있다.

2005교회요람 발간

구역장통해 세대당 1부씩 받아



2005사역박람회가 자원봉사연결팀의 주관으로 오늘(2월27일)과 다음주 일(3월6일) 오전 8:30부터 오후 1:30까지 1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사역박람회는 사역에 관심은 있으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뜻이 있어도 어떻게 사역을 해야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역박람회 브로셔가 제작되어 주부와 함께 배부된다. 브로셔는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주목적으로 한다. 주일에 신청한 결과는 주중에 부서장 및 담당자를 통하여 받게 된다. 만일 기존 사역부서의

에 창의적인 사역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원봉사연결팀에게 알려주면 새로운 사역의 장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2005교회요람이 오늘 배부된다. 교회요람위원회는 최창섭장로를 위원장으로, 전세표, 이영자, 김성배, 양동훈 장로를 위원으로, 이창현 목사를 담당교역자로, 홍보출판부(부장 김홍용집사)에서 실무를 맡아 활동에 들어간지 5개월만이다. 7주간 약 2000여명의 성도들이 사진촬영에 협조하여 칼라로 제작하였다. 협동장로는, 이명중서를 제출하고 당회에서 허락한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서리집사는 세례받고, 나이는 30에서 70세, 교회등록만1년 경과한 자로 치리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당회의 이명절차를 득하지 않으면 직분란을 비워두었다. 교적부분은 남녀구분없이 가나다순이며, 사진이 있는 교우와 없는 교우 등 2부분으로만 나뉘었다. 동명이인은 무

조건 A,B를 붙이던 것이 너무 행정적이어서, 가능한 붙이지 않았다. 몇 년간의 교우들의 이동사항(제적, 교회이동 등)을 반영하여 A,B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하였다. 직분이 서로 다르고, 남녀 성별이 다른 영문표기를 붙이지 않았다. 동일한 직분으로 동성인 경우에만 영문표기를 붙이며, 장년과 어린이가 동명이인이라 하더라도 혼동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영문표기를 붙이지 않았다. 요람의 표지는 그간 비닐커버를 하던 것을 종이커버로만 마감하였다.

요람은 세대당 1부이다. 요람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선례가 있어 섬기미(구역장)를 통하여 배부하게 되니 교우들의 이해를 바란다. 섬기미는 교역자실(4층)에서 구역세대수만큼 수령하여 구역원들에게 나누어주면 된다. 그리고 이전 교회요람은 교우들의 개인적인 정보가 담긴 문서이므로 반드시 찢어서 폐기하여야 한다.

사역박람회, 진정한 꿈의 시작 다음주일까지 2주간 열려

2005사역박람회가 자원봉사연결팀의 주관으로 오늘(2월27일)과 다음주 일(3월6일) 오전8:30부터 오후 1:30까지 1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사역박람회는 사역에 관심은 있으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뜻이 있어도 어떻게 사역을 해야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역박람회 브로셔가 제작되어 주부와 함께 배부된다.

브로셔는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주목적으로 한다. 주일에 신청한 결과는 주중에 부서장 및 담당자를 통하여 받게 된다. 만일 기존 사역부서에 창의적인 사역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원봉사연결팀에게 알려주면 새로운 사역의 장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마리아 찬양단 소개

우리는 지친 이들에게 전하는 찬양이고자 합니다



주님의교회에는 교회 창립 때부터 십 수 년 동안 한양대 병원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봉사하는 마리아 성가단이 있다. 매달 넷째 주 수요일인 2월 23일에도 오후 3-4시 예배를 위하여, 김현진 집사를 중심으로 17명이 오후 1시 교회 5층에 모여 그날 부를 찬양 2-3곡을 전경화 집사의 반주로 연습하기 시작했다. 제대로 찬양을 부를 수 없는 환자나 그런 환자들의 간호로 지친 보호자들이 대부분인 한양대 병원에서 드러지는 예배는 자칫 침체하기 쉽다. 그런 예배자리에 참여한 마리아성가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해 뜨거운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

김금숙 권사의 대표 기도로 참석자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었다. 마리아 성가단으로 함께 봉사에 참여하고픈 성도들은 김현진 집사(016-203-4133)에게 연락바란다.

새벽기도회, 기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새해부터 새벽기도회 시 개인기도요청카드를 받아 교역자들이 중보하게 된다. 요청요령은 기도회 장소인 1층 소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일에 상관없이 새벽기도회 시작 전 설교단에 있는 함에 넣으면 된다. 기도회 인도교역자가 새벽기도회 후 개인기도시간에 요청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중보기도하게 된다. 또한 기도를 요청한 이는 매주 금요일 새벽기도회 후 개인기도시간에 맨 앞좌석으로 나와 앉으면 목회자들이 기도를 돕게 된다. 새해에는 새벽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맛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사단에서 온 편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족한 것들이 많아 채울 것이 많았던 교회에 귀한 헌금을 후원해 주셔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교회’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3년째 재정집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귀한 직분을 보자면 저는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신교대 교회 또한 열악하다면 열악할 수도 감사할

조건이 넘친다면 넘친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교회입니다. 두 가정만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과 후원이 아니면 몇 백명의 병사들을 위한 일들과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열악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일은 주일 새벽을 깨우며 서울에서 오시는 귀한 박영환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과 김정기 목사님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귀한 수고로 특별한 날의 위문예배가 끊이지 않는 것과 이렇게 귀한 헌금이 후원되어지는 일들, 몇 십명이 아닌 몇 백명의 병사들은 우리의 큰 기도제목이기에 기도에 더 열심을 쏟게 되고 봉사하면서도 힘들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신교대 교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도해주세요.

- 신교대 지원장교 가족 박경순 집사 -

목요모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직 예수, 그 분과의 친밀한 교제위해

2월 24일 목요모임에는 주님의교회 문동학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유명영화배우의 죽음은 충격을 전했다. 세상에는 48분마다 자살이 있다. 이유는 그리스도 외에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가? 고통이, 실패가, 가난이, 절망이, 소외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유익하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리스도를 알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울한가?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목적이기 보다 무언가를 통해 얻으려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게 되면, 그 선택에 나를 맡길 수 있다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6절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전부이며, 그 안에서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란 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다. 체험적으로 성령은 우리의 체질, 기질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염색체, 기질, 혈액형 등의 유물론적, 심리학적 세계관에 영은 결코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목표가 예수그리스도이다. 중간 목

표가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주 예수를 앎으로’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 가까이 가는 것, 한 걸음씩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제발 나의 성품에 참여해라 좀 더 변화해라 나와 대화할 수 있도록, 수준을 맞추자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나와 같이 친밀하게 지내자 함께 놀자”라고. 이사야 1장과 호세아 6장 6절에도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길 원한다고 말씀하신다. 집에서 주인을 반기는 강아지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변함없이 사모하는가?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한다. 만약 죄책감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맨날 회개하고 또 반복한다면 원위치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예수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 베드로후서 1장 5-7절의 말씀을 생각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찾고 좌표를 발견하고

파워를 가지라 그리스도 밖에서는 nothing이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면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자 때로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면 상실, 깨어짐을 참고 따라가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기도

주님 홀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희에게 내리신 주의 뜻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방과후 학교, 교사수련회가 열립니다

3월 둘째주, 토요일(3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방과후 학교의 교사들을 위한 교사수련회가 2월28일(월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열린다. 지난 화요일(22일)에 있었던 교사 기도회에서는 원래 3월 첫째주 토요일(5일)로 계획했던 방과후 학교를 한 주 더 늦춘, 12일로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시간을 한 주 더 가진 후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

사수련회에서는 교사들이 앞으로 시작될 방과후 학교 학생들에게 헌신하기 위한 스스로의 영적무장과 서로간의 단합을 위해 1박2일동안의 시간을 함께할 것이다. 교사수련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관심있는 성도들은 이종은권사(011-9638-8719)에게 연락할 수 있다.

2교구 구역지도자세미나

2교구구역지도자세미나가 1층 3집회실에서 1시부터 약 3시간동안 열렸다. 2005년 교구 및 구역의 사역에 대한 안내와 새가족도우미의 역할, 구역모임지

행시 중요시 해야할 것과 그밖의 구역 성장을 위한 교육과 교구행정에 대한 사항등을 나누는 자리였다. 올해 새롭게 구역지도자의 명칭이 바뀌는데, 지도자는 ‘이끄미’로 구역장은 ‘섬기미’, 부구역장은 ‘다서미’, 권찰은 ‘돌보미’, 지역장은 ‘살피미’이다. 이창현목사는 구역모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상담이라고 말씀하였다. 구역지도자들이 리더로서 구역원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와 그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현주소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바라고, 나의 영적성장, 육적성장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교회)의 성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하였다. 구역모임의 개강은 3월4일(금)부터 7월 첫째주까지 16주간 이루어진다. 구역이끄미모임은 3월2일(수), 저녁 수요성경공부 후 지하1층 찬양연습실에서 있을 예정이고, 대심방은 3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의료선교부

외국인 근로자 센터 진료현황 보고 및 봉사요청

의료선교부 안산센터 팀장 박혁동집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주님의교회 의료선교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내에서의 의료 선교는, 광장동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서의 진료와 안산 외국인 근로자 진료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중 광장동과 안산 소금밭교회의 진료에 대한 소식은 다음 기회에 두 곳 진료 팀장 집사들에게 미뤄드리고, 이번에는 안산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의료 봉사 참여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안산에 저희 교회 의료 팀이 나가기 시작한 것은 34년 전이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원곡 본동 동사무소 2층을 빌려 매월 또는 격월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료를 했었다. 현재는 그 장소 빌리기가 여의치 않아 그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근로자 센터의 방 하나를 빌려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곳 말고도 얼마 전까지 원곡3동에 있는 소금밭 교회와 부곡동 독거노인 센터의 진료도 병행을 했었지만, 교회에서의 진료는 환자가 별로 없었으며, 독거노인분들은 대개 만성 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고, 타 봉사단체에서도 진료를 받으며, 두 곳 다 근로자 센터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주로 센터에서의 진료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원, 진료시간 보장이 되면, 그 두 곳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7-80%가 불법 체류자라 알고 있는데, 그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몸이 아파도 진료비가 비싸 병원가기가 힘든 상황이고, 대개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다는데, 그나마 일반이기 때문에 약값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한다. 대부분 중국,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들이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근로자들도 제법 많았다. 대부분이 일하면서 다친 후유증과 과로에서 온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기 등으로 진료소를 찾아오는데, 초기 진료시기를 놓쳐 심해진 경우가 많았다. 작년까지 홀수 달 첫째 주, 짝수 달 둘째 주 주일날 2시 반부터 2-3시간 진료를 하였는데, 요즘은 서울 소재의 큰 교회들에서도 진료를 자주 나오기에 저희는 짝수 달 둘째 주에 나가기로 하였지만, 진료 팀 인원이 확충되고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매달 나가던지 진료 횟수와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는 의사(한 의사) 2-3명, 약사 1-2명, 간호사, 치과 의사 1-2명이 팀을 이뤄 나가는데, 상태가 심한 경우 후송이나 2차, 3차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의료전달 시스템의 부재로, 먹는 약과 파스, 연고, 안약, 이음액 등을 처방하고, 침을 놓아주고, 가끔 치과 진료를 하는데 그치는 실정이다. 필요한 경우 종합병원으로의 연계 진료도 가능하게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여러 면에서 보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으며, 또 그렇게 되기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해 중보기도 또한 부탁드린다. 좀 더 폭 넓고 나은 진료를 위해 여러 교우들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 의료인 교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또,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접수와 약 써는 일, 진료 보조하는 일등 많은 일들이 교우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이렇게, 이나마 잘 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베풀 기회가 왔음을 감사하고, 더구나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를 찾아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보살펴야 함이 옳을 줄 압니다. 주님의교회 주관으로 광장동, 안산뿐 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외국인 근로자, 국내 빈민층과 소외된 분들에게 대한 진료, 폭 넓고 깊게 이루어지고 의료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많은 문의와 참여를 위해 연락처를 올린다.

2004년 의료선교부

서준규(부장) 019-9211-0094

김학원(총무) 019-449-8603

심경화(부총무) 011-724-7693

이문영(치과팀장) 016-736-9830

김인숙(약무팀장) 011-9933-5824

김재중(광장동 센터팀장) 019-224-3154

박혁동(안산 센터 팀장) 011-710-9513

김광일(소금밭 교회 팀장) 017-232-5880

5교구 구역지도자 세미나



2월 2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층 대회의실에서 5교구 구역지도자세미나를 우동운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교구장로, 구역리더, 살피미(지역장), 섬기미(구역장), 다서미(부구역장), 돌보미(권찰)들이 세미나에 동참했다. 교회생활의 실체는 구역에서 이루어진다. 구역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

며,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왜 교회가 구역을 필요로 하는가의 물음에 구역은 단순히 모임이 아니라 생활양식으로써 소그룹 공동체이고,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역모임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이루는데 목적이있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공동체이어야 하며,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이어야하고, 죄인을 향해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한다고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기도로서 구역모임을 준비해야한다고 다짐했다.

우리의 말과 일과 믿음을

'진짜' 되게 하는 충성 '얼음냉수' 발간



주님의 교회 협력목사로 있는 문희곤 목사(현 한국 예수전도단 대표)는 우리의 말과 일과 믿음을 진짜 되게 하는 충성 '얼음냉수'를 발간하였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영적 이슈들에 '딤편' 결며 제발 그냥 넘기지 말자고, 한 번만 더 고민해보자며 덤벼온 문희곤 목사, 그가 이 책을 통해 끄집어내는 것은 충성이다. 이 책은 무엇이 충성이며 또 무엇이 충성이 아닌지, 정말로 충성이 행위와 성

과로만 평가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보이기 위해 일하는 태도를 버릴 수 있는지, 충성스런 일꾼의 길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다.

•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1.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2. 충성이란 무엇인가?
3. 언제까지, 어디까지 충성해야 할까?
4. 충성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5. 위탁, 인간관계에서 서로 충성하는 것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 잠언25:13- " 하나님은 지금도 '시원한' 진짜배기 충성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란

하늘나라의 모형인 건강한 가정을 위해
진새골에서의 5주간의 캠프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가정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치유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곳이 또한 가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오히려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 가정의 파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방해한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는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풍성한 삶을 가정에 회복시켜준다. 지원자들은 공기 맑고 아름다운 경기도 광주 초월면 진새골에서 주말을 이용한 5주간의 캠프(4주간은 1박2일, 마지막 주는 토요일 오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창조의 원리, 가정제도의 원리와 목적,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부의 성, 사랑의 대화, 자녀교육, 헌신과, 영적리더십 등의 전문적인 강의와, 강의 전후의 찬양과 간증과 고백과 나눔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갈등과 상처

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배우자와의 친밀감과 사랑을 회복하고 증진시키는, 눈물과 회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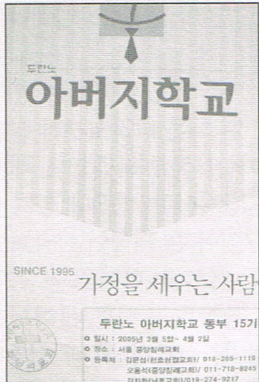
감사와 찬양,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감동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자들이 각종 행사와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품위 있는 대접을 받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존재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 받고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화목하고 윤택한 풍성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며, 이러한 회복을 통해 가정의 영적리더십이 확보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가정훈련학교는 원칙적으로 결혼 8년차 이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갈등이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가정도 대상이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통해 더욱 화목하고 친밀하며 영적나눔이 있는 풍성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지원자들은 5주간의 캠프에 중학생까지의 자녀들을 대동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잘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주님의교회 가정사역팀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도 개설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성도님들이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또 가정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아버지학교에 대하여

아버지학교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이며 가정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오는 3월 5일부터 서울중앙침례교회에서 개설되는 아버지학교는 두란노아버지학교로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슬로건 하에,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을 주제로 5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5시~10시30분)에 진행된다.

아버지학교는 서울 동부지역에서, 3월 5일을 시작으로 4월, 9월, 그리고 10월에 개설될 예정이다. 주님의교회 가정사역팀은 주님의교회에서 9월에 이 아버지학교를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3월에 개설되는 아버지학교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버지의 신분을 되찾고 그 귀한 역할과 기능을 터득하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바른 영향력을 회복하여 가정을 바로 세우고, 주님의 교회에서 개설될 아버지학교에서 다른 가정을 섬기는 사역자로 동참하기를 권면한다.

제2남선교회 2월 정기모임 개최

제2남선교회 2월 정기모임이 2월19일(토요일) 오전 5시30분에 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인근식당에서 개최되었다. 벌써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불타는 회원 12명이 동참하여 이루어진 모임에서 먼저, 한 해 동안 앞장서서 수고할 총무(이재현)와 부회장(이상록, 김홍용, 정용섭, 강진식, 왕승근, 남장희, 이종석, 장승수, 이충길, 최성준, 한상곤, 이 열)을 선출하였다. 이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토의·확정하였으며, 참석회원들의 건의사항 수렴 그리고 앞으로 제2남선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이어졌다. 구체적인 “2005년도 사업계획” 내용은 서신으로 금명간 각 회원들에게 개별 우송될 예정이다. 1947년생 ~ 1950년생으로서 주님의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남자교우들은 함께 동참하여 제2남선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회원들 개개인의 삶에서 많은 잃어버린 그리고 잊어버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무지개 홈스쿨을 섬깁니다

매달 셋째 주일 청년부는 송파구에 소재한 무지개 홈스쿨이라는 어린이 재활원에 봉사활동을

떠난다. 주일 오후 그 곳의 방 한 칸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몇몇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서, 정신장애를 가진 어떤 소녀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하고, 몇몇은 마땅한 책이 없어서인지 상가 전화번호책등을 가지고 둘러앉아 놀기도 하는 등의 모습들이 펼쳐진다. 그 곳에서 청년부가 하는 일은 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 저녁식사 준비, 빨래, 청소, 목욕시키기, 아이들과 놀아주는 등의 일을 약 두 세 시간에 걸쳐 하고 있다. 추운 겨울에도 형제들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빨래를 밟으며 몸을 아끼지 않는다. 요리에 재능이 있는 자매들을 도우며 맛있는 음식들을 부엌에서 만들어내는 시간은 참 즐거운 시간이다.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도 만든 사람들은 먹을 수 없지만 주일 오후의 피곤한 몸 상태로도 서로가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낮아지는 마음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무지개 홈스쿨에서 하는 청년부의 봉사는 식사나 청소와 빨래등의 실질적인 도움 외에도 무지개 홈스쿨에 속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매달 셋째 주일의 오후의 작은 일이지만 무지개 홈스쿨 봉사를 통해 청년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하는데 더욱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초등부”



지난 2월 19-20일에는 초등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열렸다. 19일 토요일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선

생님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등록을 마친 아이들은 조를 배정받고, 수련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조장선생님과 함께 ‘겨울 대 모험’을 떠났다. ‘겨울 대 모험’은 6개의 즐거운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이들이 게임이 준비된 방을 돌면서 참여할 때마다 함성소리와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게임을 준비한 교사와 조장교사,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신나는 모험을 마치고, 맛있는 뷔페 식사를 한 후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가졌다. 작은 제자와 함께 주 안에서 뛰놀며 온 몸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한 후, 전도사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말씀이 끝난 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엎드려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시기를 간구했다. 기도시간에는 초등부 친구들과 교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주님과 만난 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가 마치고 교사들이 만들어 준 떡볶이 간식은 또 너무나 맛있었다. 다음날 20일은 마태복은 20장 묵상을 하면서 주일날 아침을 맞이했다. 우리는 아침을 함께 먹고, 반별 모임을 통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누었다. 토요일 늦게까지 활동하느라 피곤하리라 생각했지만, 이야기를 하는 초등부 친구들의 모습은 피곤한 기색 없이 활기찬 모습이었다. 수련회 마지막 시간을 예배로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 수련회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초등부 지체들의 모습이었다.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기를 간구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자유

하게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다. 뿐만 아니라 수련회 계획단계에서부터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함께 한 교사들 또한 은혜로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셨다. 그리고 더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앞으로 초등부가 2005년 표어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기대해본다.

브리스길라 중보기도학교



회 소예배실에서 열리고있다.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브리스길라 중보기도학교는 주님의 교회와 예수전도단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영적개혁’이라는 주제 아래 강의를 하고 소그룹 모임의 중보기도사역을 새롭게 정비하여 각 지역에 전문적인 중보자들이 일어나게하는것이 이 학교의 취지이다.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대의 성도 120여명이 참여하고있다.

중보기도학교의 목표는 중보기도와 예배, 영적전쟁 그리고 서울에 대한 리서치와 영적 도해를 통해 중보기도뿐만아니라 중보자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있게 하고, 중보자적인 관점에서 그 땅과 영역들을 어떻게 기도하며 회복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깨닫게 하며, 사회의 각 문화 영역들을 어떻게 구속하고 회복하는지 학생 스스로 발견하여 실제적으로 땅을 밟으며 기도하게 한다. 이제 개인의 경건한 삶을 바탕으로 연합을 통한 중보기도가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와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눈을 여는 학교가 될 것이다.

브리스길라 중보기도학교는 2월 15일부터 5월 4일(12주)까지 매주 화,수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30분까지 주님의교회 소예배실에서 열리고있다.

"하나님 말씀 들려 주세요"

주일 아침 9시 40분이 되면 짙네 어린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울동이 교회에 울려 퍼진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도 많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가사가 나올 때는 목청 높여 찬양을 한다. 찬양 후 올해부터는 아이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한다. 처음 할 때는 몇씩어서 두세 번 해야 목청을 높이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를 이제는 한 번에 또 랑또랑하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아이들의 열기가 목소리를 통해 느껴진다. 전도사는 천지창조에 관한 내용을 몇 주에 걸쳐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늘, 바다, 땅에 사는 동물들을 오리고, 접고, 붙이는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월 20일 주일 새작반(4살)과 봉우리반(5살)은 하늘, 바다, 땅에 사는 동물들을 붙이는 게임을 하였다. 또한, 처음에 잘 되지 않던 경건회가 이제는 교사 대부분이 참석하여 예배 전 교사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수요일예배는 수요일아침에서

교육지원부에서는 매주 수요일, 수요일예배시간에 어린이들을 위한 '수요일아침'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일아침에서는 수요일 오후7시부터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어린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며 그림을 그리고 놀아주는데, 앞으로는 부모님들의 경건시간동안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 조금씩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종은 권사는, “지금은 목사님과 전도사의 자녀들만 오고 있는데, 교인들에게 아직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사랑으로 무장한 여러 집사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으니 안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러한 봉사를 함께하기 원하는 성도는 이종은 권사(011-9638-8719)에게 문의할 수 있다.